4월 12일(월) / 삼상 7-10

▶ 내용요약 :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교훈했다. 그리고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로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8장에서 이스라엘은 노년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심과 동시에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다. 한편 9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소년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 그리고 10장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 질문 :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인가? (10장)
▶ 생각하기 :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요구했고 이에 사무엘은 왕으로 인해 겪게 될 고통과 억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인간 왕을 원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기억하자.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다.

4월 13일(화) / 삼상 11-14

▶ 내용요약 :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협박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다. 이에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 한편 12장에는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겨야 함을 교훈했다. 13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싸움도 하기 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은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한편 14장에서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사울의 불필요한 맹세로 인해 요나단이 목숨을 잃을 뻔 했으나 백성들의 간구로 건짐을 받았다.
▶ 질문 : 블레셋 군대를 습격하여 승리를 거둔 사울 왕의 아들은? (14장)
▶ 생각하기 :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자. 어려운 때일수록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4월 14일(수) / 삼상 15-17

▶ 내용요약 :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나 사울은 탐심으로 인해 자신의 눈에 좋은 것들을 끌고 돌아왔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한 후에 사울을 떠났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 집의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이후 다윗은 악령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17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매와 돌로 쓰러뜨렸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한 것이다.
▶ 질문 :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새의 막내 아들은 누구인가? (17장)
▶ 생각하기 :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16:7)” 우리는 서로의 겉모습(외모, 성적, 재산 등)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4월 15일(목) / 삼상 18-21

▶ 내용요약 :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환호를 보고 질투와 위협을 느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두 번이나 던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도 점점 더 커져갔다. 이후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다. 19장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결국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쳤다. 20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진심을 알아봐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마음이 확고함을 알아내었고, 그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 한편 21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함으로써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 질문 :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8장)
▶ 생각하기 :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요나단에게도 큰 위협이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자신이 장차 물려받을 왕위보다 친구를 향한 사랑이 더 소중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자.

4월 16일(금) / 삼하 7-9

▶ 내용요약 :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계획을 막으셨다. 그리고 장차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동시에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도 약속하셨다. 이후 8장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갔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한편 9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고 그의 아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고 자신과 함께 식탁에 앉게 했을 뿐 아니라, 사울 왕의 모든 밭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친구에게 받은 사랑을 그의 자녀에게 돌려주었던 것이다.
▶ 질문 :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건축하고자 했던 것은? (7장)
▶ 생각하기 :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다.

4월 17일(토) / 삼하 10-12

▶ 내용요약 :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정탐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낸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결국 그들은 사신들을 모욕한 후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 이에 진노한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11장에서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를 끌어들여 동침하고 말았다. 이후 밧세바가 자신으로 인해 임신하게 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터에 두고 온 전우들로 인하여 아내를 만나러 갈 수 없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 죽게 한 후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후 밧세바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다.
▶ 질문 :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빼앗은 여인의 이름은? (11장)
▶ 생각하기 :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5)”는 말씀을 기억하자. 그리고 죄가 더 자라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4월 18일(일) / 삼하 13-15

▶ 내용요약 :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내쫓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다말은 자신의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야 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압살롬은 암논을 비롯한 자신의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인 후 어머니의 친정인 그술로 도망쳐서 약 3년간을 그곳에 머물렀다. 이후 14장에서는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지켜본 요압이 지혜로운 드고아 여인을 통해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다. 처음에 다윗은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았으나 요압의 중재로 결국에는 화해를 하게 되었다. 15장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였다. 그는 먼저 성문 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흐른 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친구인 후새를 성읍으로 보내면서, 압살롬의 계획을 방해하고,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도록 부탁했다.
▶ 질문 : 다말의 오빠로서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했던 왕자의 이름은? (13-15장)
▶ 생각하기 :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 다윗의 집에는 끔찍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다. 강간, 살인, 반역의 죄가 다윗의 집을 괴롭혔던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죄와 악한 습관들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